

2024년  
4월 17일 수  
(April-2024)

# Monthly Yangji



• Edited / 입학상담실(Rhee) • Published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16 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 (031) 326-5000

## 부원장님 메시지

안녕하세요. 부원장입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누군가의 생각과 삶 그리고 운명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 주어 저의 오랜 생각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중한 자세로 일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담은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쉬(Midrash)'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은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다윗 왕은 보석 세공인을 부른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반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귀가 새겨져 있어야 하느니라.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려 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여야 하고, 반대로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하느니라.”

보석 세공인은 명령대로 곧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다윗 왕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려 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말이면서, 반대로 큰 절망에 빠져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자는 이런 글귀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훗날 이 스토리는 “랜터 윌슨 스미스(Lanta Wilson Smith)”라는 시인에게 영감을 주어 아래와 같은 시를 짓게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  
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  
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마음에 새  
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양지 14기 여러분!  
힘내십시오. 곧 지나갑니다. 눈 뜨  
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시 소식

### ① 2025학년도 대입 전형별 주요 사항

2025학년도 대입은 전년도 선발 기준을 유지한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934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수시모집의 감소인원(-551명)이 정시모집의 감소인원(-2811명)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모집 비율에서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79.0%에서 79.6%로 0.6%p 소폭 상승했다. 정시모집 비율은 21.0%에서 20.4%로 0.6%p 소폭 감소했다. 다만 권역별 모집인원 및 비율은 상이하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수시 모집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은 65.0%, 비수도권 88.9%로 비수도권 대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정시 모집인원은 수도권 35.0%, 비수도권 11.1%로 수도권 대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목표하는 대학의 지역에 따라 다른 맞춤형 지원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수시에서는 모집인원의 86.0%를 학생부위주(교과, 종합)로, 정시에서는 모집인원의 91.9%를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즉,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별 비율이 매우 다르다. 수시모집 중에서도 수도권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정시모집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수능위주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주로 예체능계열에 해당되는 실기/실적위주전형이 그 다음으로 높다.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이 매우 낮다. 논술전형은 수도권 수시모집인원의 11.39%를 차지하지만 비수도권은 0.80%밖에 되지 않는다.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했고, 서경대는 폐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별 비율이 매우 다르므로 전형별 지원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증가폭은 조금 줄어들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전형을 10% 이상 권고하는 조항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인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따라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권고 및 의무비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증가 폭은 다소 감소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증가 흐름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학 및 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율이 높아져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215명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모집인원의 증가 폭은 줄었지만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대학별 모집인원의 변화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은 60% 이상으로 늘어

나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한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위주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전형, 수능위주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부터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한다. 올해 대입전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통합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계열구분이 없는 고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해 수능 선택과목에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증가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선택과목 필수반영을 폐지한 대학은 17개교다. 수학(미적분·기하), 탐구(과학) 등의 필수 반영 과목을 지정했던 자연계열 모집단위들이 이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탐구(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다. 서울대의 경우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미적분·기하), 탐구(과학)을 활용하는 모든 전형에서 필수 응시해야 한다. 고려대의 경우 수능을 활용하는 수시 및 정시 모든 전형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탐구(과학)에 필수 응시해야 한다. 한양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으나 필수 응시과목이 없다.

출처: <https://news.unn.net>

② 2025학년도 주요대학 논술전형

2025학년도 고려대의 논술전형 신설은 학생부로 최상위 대학진학이 다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의 논술 선발 인원이 적었는데,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함으로써, 인문계 학생들에게 최상위권 대학의 진학문이 넓어졌다고 볼수 있겠다.

☞ 2025 주요대학 논술 전형

대학	인원	방법	수능 최저
연세대	351	논술100	×
고려대	344	논술100	○
서강대	173	논술80 교과10 출결10	○
성대	381	논술100	○
한양대	174	논술90 학종10	×

하지만, 고려대의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4개 영역 등급 합 8이내, 경영대학은 4개 영역 등급 합 5이내를 적용한다. 따라서 고려대 논술전형을 준비한다면 수능 역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능최저	주요대
4개 등급합 5	고대 경영
4개 등급합 8	고대 전 모집단위
3개 등급합 5~6	성대(의예제외)
3개 등급합 7	서강대
미적용	연세대, 한양대

연세대 논술전형에도 변화가 있는데 자연계열에서 과학논술을 폐지한 것으로 이로써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수리 논술만 실시하게 되었다.

논술유형 (자연)		
1	연세 / 성균관	서강 / 한양
2	수학+수 I+ 수 II+미적+ 확통+기하	수 I+수 II+ 미적+확통 +기하
연세대 2025부터 과학논술 폐지		

③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별첨**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지역	대학명	현정원	신청	배정	'25학년도 정원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365	0	135
		경희대	110			110
		연세대	110			110
		한양대	110			110
		고려대	106			106
		가톨릭대	93			93
		중앙대	86			86
		이화여대	76			76
<b>서울</b>		<b>826</b>	<b>365</b>	<b>0</b>	<b>826</b>	
수도권	경기	성균관대	40	565	361	120
		아주대	40			80
		차의과대	40			80
	인천	인하대	49			120
		가천대	40			130
<b>경기·인천</b>		<b>209</b>	<b>565</b>	<b>361</b>	<b>570</b>	
<b>수도권 소계</b>		<b>1,035</b>	<b>930</b>	<b>361</b>	<b>1,396</b>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49	2,471	1,639	132
		연세대 분교	93			100
		한림대	76			100
		가톨릭관동대	49			100
	경북	동국대 분교	49			120
		경북대	110			200
	대구	계명대	76			120
		영남대	76			120
		대구가톨릭대	40			80
		경남	경상국립대			76
	부산대		125			200
	부산	인제대	93			100
		고신대	76			100
		동아대	49			100
	울산	울산대	40			120
		전북	전북대			142
	원광대		93			150
	광주	전남대	125			200
		조선대	125			150
	제주	제주대	40			100
		충남	순천향대			93
	단국대(천안)		40			120
	충북	충북대	49			200
		건국대 분교	40			100
	대전	충남대	110			200
		건양대	49			100
		울지대	40			100
	<b>비수도권 소계</b>		<b>2,023</b>			<b>2,471</b>
<b>합계</b>		<b>3,058</b>	<b>3,401</b>	<b>2,000</b>	<b>5,058</b>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④ THE 세계대학랭킹

2024 THE 세계 대학 순위 TOP100

영국 대학 평가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2024 THE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이 순위는 교육, 연구 환경, 연구 품질, 산업, 국제 전망 5가지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매긴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상

위 5위권의 다른 대학들은 순위가 바뀌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2위로 올라섰고, 하버드 대학교는 4위로 밀려났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올해 두 계단 상승해 3위를 차지했으며, 캠브리지 대학교는 지난해 공동 3위를 차지한 뒤 5위로 밀려났다.

상위 100개 대학 가운데 국가별로는 미국이 36개 대학, 영국 11개 대학, 독일 8개 대학 순으로 많았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3개 대학, 중국 7개 대학, 홍콩 5개 대학, 일본 2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대는 62위로 국내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56위에 비해 6계단 하락했다. 연세대는 76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하였다.

출처: <http://www.edujin.co.kr>

※ 국내 대학 순위

국내순위	세계순위	학교
1	62	서울대학교
2	76	연세대학교
3	83	한국과학기술원
4	145	성균관대학교
5	149	포항공과대학교
6	199	울산과학기술원
7	201~250	고려대학교
8	251~300	경희대학교
8		세종대학교
8	351~400	한양대학교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2	401~500	광주과학기술원
12		중앙대학교

※ 세계 대학 순위

순위	대학명	국가
1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
2	스탠퍼드 대학교	미국
3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미국
4	하버드 대학교	미국
5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
6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
7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미국
8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
9	UC 버클리	미국
10	예일 대학교	미국

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 핵심: 킬러문항 배제·유사성 검증 강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4일 실시된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도입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4번째 수능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유사성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킬러문항 배제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제과정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방송(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간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수능도 2022학년도에 도입한 문·이과 통합시험 기조를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며, 사회·과학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국어는 공통과목(독서·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은 수학Ⅰ·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탐구영역에서도 문·이과 칸막이가 사라지며,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2개를 고를 수 있다. 한국사는 필수영역이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 유사성 검증 강화

교육부와 평가원은 올해 수능부터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작년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과 같은 ‘판박이’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추천을 받은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준에 따라 출제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5배수’로 먼저 무작위 선발하고, 다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최종 출제위원을) 추려낼 것 계획이다. 앞으로는 출제본부가 꾸려진 뒤에도 사교육 모의고사·문제지와 유사성을 점검한다. 그동안에는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은 유사성 검증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시중 문제지나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발간 예정 자료 등을 입수해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킬러문항 판별에 더해 유사성 검증까지 맡게 됐다.

◇ 평가원 이의심사 절차 보완

지금까지는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관해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추가할 방침이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도 시험 직후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다’는 이의신청이 200건 이상 접수됐던 바 있다. 평가원은 안건을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에듀조선

☐ 학원 소식

① **몰입학습관 공지(중요)!**

몰입학습관의 면학분위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재원생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기의출 이후 면학분위를 다잡기 위해, 아래 사항은 경고 없이 별점 부과하오니, 꼭 숙지하고 지켜주기 바랍니다.

1. 다른 학생과 붙어있는 모든 행동

-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붙어있는 것 자체로 별점 부과
- 몰입학습관에서는 나란히 붙어서 이동하지 않고 반드시 우측 한 줄로 다닙니다

2. 대화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동

- 손짓 또는 소리내지 않고 입 모양하는 등의 모든 비언어적 대화
- 몰입학습관 내에서 스킨쉽(안마, 어깨동무, 팔짱 등)
- 쪽지 또는 물건을 주고 받는 행동

3. 음식물 반입 및 취식

- 당보충을 위한 일회성 초콜릿, 사탕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반입 및 취식

4.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 다른 학생의 자리에 앉는 것
- 학습관 내에서 뛰어다니는 것
- 자습시간에 학습관 내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
- 조심성 없이 발소리를 내며 이동하는 것
- 학습관 출입문 쪽의 절대정숙 Zone에서의 대화